

논리를 넘어선 직관의 문학 기제 - 《노자》의 ‘비유’를 논함*

安 熙 珍**

<目 次>

I. 서론	III. 형식으로 분석한 《노자》 비유의 특징
II. 내용으로 분석한 《노자》의 비유	IV. 결론

I. 서론

장자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사물의 껍데기만 그려낼 뿐 알맹이는 그려 내지 못한다.¹⁾ 언어는 실상의 상징이지 실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체는 이름을 통해 그 존재를 표시한다. 그럼에도 이름은 지시적 한계에 머물 뿐이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영원불변한 실상에서 멀어진다고 한 노자의 말²⁾은 일찌감치 그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 어떤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름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언어는 그런 까닭에 지시성과 모호성을 동시에 소유한다. 어떤 개체를 지칭할 경우 언어는 확연한 대

* 이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檀國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可以言論者，物之粗也。可以意致者，物之精也。”《원전으로 읽는 莊子·秋水》(현암사, 1997), 422쪽.

2)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老子道德經·一章》，《四部備要·老子》(中華書局, 1989), 3쪽.

상을 지적하면서도 사실은 그 참모습의 외연에 가 닿는 것일 뿐이다. 형이상학을 논한 중국 고대의 사상도 이런 딜레마에 봉착했다. ‘도’란 무엇인가? 《노자》에게 있어서 ‘도’는 자연의 실존적 섭리이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추구해야 할 이상과 원칙이기도 하고, 인간사회에서는 그 질서이기도 하다.³⁾ 노자는 이런 ‘도’의 복잡성과 애매성에 좀 더 확실한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노자는 언어의 한계에 봉착한다. 《노자》에게 있어서 ‘도’는 ‘도’라고 하는 동시에 부정된다. 그러므로 ‘이름’도 불리는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다. ‘도’는 ‘대(大)’이기도 하고 ‘서(逝)’인 동시에, ‘원(遠)’이며 ‘반(返)’이다.⁴⁾ 노자는 그 규명을 위한 노력의 궁극에서 언어 표현의 변용이라는 수사를 활용한다. 그 변용에는 부정, 역설, 과장, 도치 등이 있지만 노자의 글에서 주목 받을 만한 중요한 문학적 변용이 있다면 단연 ‘비유’이다. 비유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사되는 가장 효과적인 문학적 수사법이다. 가리키려는 대상의 실상을 완연하게 그리기 위해서, 좋은 비유는 최고의 의미 구현에 동원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자》의 비유에 대해서 분석한다. 비유(Metaphor)는 문학에서 가장 흔한 수사적 기교로 인정되지만 또한 가장 훌륭한 ‘수사법 Rhetoric’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자》의 비유가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특히 그런 비유의 문화적 기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자》 문장의 문학적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비유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수사법이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직유’·‘은유’·‘의인’·‘활유’·‘의성’·‘의태’·‘풍유’·‘대유’·‘중의’·‘상징’ 등등으로 분류

3) 대만대학의 진고응은 이를 ‘형이상학적 실존으로서의 도’, ‘규율성의 도’, ‘인생의 준칙이나 지표, 모범으로서의 도’ 등으로 구분했다. 陳鼓應, 《老子今註今譯》, 商務印書館, 民國75年, 2쪽. 진고응은 같은 책 50쪽에서 도를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 우주를 창도하는 원동력, 만물이 움직여 가는 규칙, 인류 행위의 원칙 등으로 규정짓고 있다.

4) 吾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大曰逝, 逝曰遠, 遠曰返。《老子道德經·二十五章》, 《四部備要·老子》, 9쪽.

되고 있지만, 크게 '직유'·'은유'·'대유'의 3가지로 나뉘며 중국의 경우는 같은 의미로 '明喻'·'暗喻'·'借喻'로 분류한다.⁵⁾ 우리가 말하는 '직유', '은유'를 중국에서도 '直喻', '隱喻', 또는 '명유', '암유'라 하고, 우리의 '대유', '활유', '풍유' 등등⁶⁾은 모두 '차유'라고 한다. 그 외에도 분류되는 '略喻'는 축약화 된 비유이고, '博喻'는 비유가 중첩되는 경우다. 그러나 중국 학자 李運富의 말대로 비유의 분류 문제는 상당히 애매해서 언어권별 학계와 학자마다 차이가 난다.⁷⁾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 간의 견해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사한 범주나 성격의 사물로 대체하거나, 비교될만한 사례를 드는 수사법을 말한다.⁸⁾ 陳望道는 比喻를 '비유譬喻'라고 강조한다.⁹⁾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 비유比喻에 비해서 좀 더 내적 의미가 드러난다. '譬'란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어떤 용어와 분류 방법을 택하건, 중국 수사학에 따라 비유법을 위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면 《노자》의 비유가 어떤 특징을 띠는지 곧 드러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여기서는 王弼의 통행본 《노자》를 저본으로 채택했

-
- 5) 王漫宇編著, 《修辭學的應用》(中國物資出版社, 1986年), 8쪽.
 - 6) 그 외에도 “類喻”、“潔喻”、“對喻”、“博喻”、“簡喻”、“詳喻”、“引喻”、“虛喻”가 있다. 李維琦編, 《修辭學》, 湖南人民出版社, 1986年, 201쪽 倪寶元, 《修辭》(浙江人民出版社, 1982年), 205쪽 참조.
 - 7) 《古代漢語教程》(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年), 373쪽.
 - 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年, 100쪽의 '比喻'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이 있는 사물을 예로 들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생동하고 선명한 표현을 구사하는 방법. 用某些有類似點的事物來比擬想要說的某一事物, 以便表達得更加生動鮮明。” 黃伯榮의 《現代漢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을 묘사하거나 어떤 이치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이치를 예로 들어 말하는 것으로, 이런 수사법을 비유라 한다. 描寫事物或說明道理時, 用同它有相似點的別的事物或道理來打比方, 這種辭格叫做比喻。”
 - 9) 陳望道, 《修辭學發凡》 “思想的事物同另外的事物有了類似點, 說話和寫文章時就用那另外的事物來比擬這思想的對象的, 名叫譬喻。”

다. 《노자》의 판본은 다양한데다가 1993년 郭店楚簡 《노자》가 출토된 뒤 《노자》의 원형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四部叢刊本 《노자》를 기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노자》는 초기 원형의 출현 이래 근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판본에 따른 문구의 차이가 다소간 있어왔으나 그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되고 있고, 특히 널리 공인된 틀을 유지해 오면서 연구된 그 내면적 정신은 크게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통행본의 채택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노자》는 제왕학 지침서이다.¹⁰⁾ 일반적으로 선진 시기의 제자산문으로만 분류하면 하나의 사상서일 뿐이다.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헌의 성격을 규정짓는 과정에서 유가, 병가 등에 편입시키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가 문헌이며, 당시 군왕에게 통치술을 설파하는 제왕학 지침서다. 1993년 발굴된 곡점 고분의 초간에서 나온 《노자》는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유가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와 한 범주에 넣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 역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초기 《노자》의 원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자》의 문장을, 노자가 당시의 군왕에게 전해주는 통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번역하였다. 번역문이 경어체로 된 것은 그런 《노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 또한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다. 《노자》를 보면 ‘聖人’이라는 어휘가 노자의 말을 듣는 상대방으로 나타난다. 《노자》 전체에서 이 어휘는 총 32회 출현하는데, 모두 ‘이상적인 통치자’, ‘훌륭한 군왕’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

10) 도가 사상가들은 역대의 흥망성쇠와 고금의 이치를 기록하던 사관에서 나왔으니, 권력을 알려면 핵심과 근본을 파악하되,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며, 낮고 연약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했다. 이는 바로 군왕의 통치술이다. “道家者流，蓋出於史官，歷記成敗存亡禍福、古今之道，知乘要執本，清虛以自守，卑弱以自持，此君人南面之術也”(《漢書·藝文志》) 《四部備要》 16冊(中華書局，1989年)，581쪽.

면 “훌륭한 군왕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 라거나 “훌륭한 군왕은 자신을 남의 뒤에 있게 하므로 그 자신이 앞섭니다. 聖人後其身而身先” 등이다. 《노자》가 말하는 좋은 지도자란 도의 이치를 깨닫고 도와 일치하는 정신으로 도와 같은 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고응 등이 정의한 기초로 한다면 《노자》의 도란 자연과 인간사회의 이치인 동시에, 인간의 인격적 이상이고, 그러므로 또한 다스림의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자》전편을 관통하는 도에 대한 노자의 관점은 도에 대한 이 3가지의 이론이 바탕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자》의 비유 역시 이 3가지 이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사된 문학적 수사인 셈이다.

II. 내용으로 분석한 《노자》의 비유

1. 자연계의 이치로 '무위'를 비유

주지하다시피 ‘自然’이라는 어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환경으로서의 ‘자연계’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움’이다.¹¹⁾ 《노자》에는 자연이라는 어휘가 5곳에서 쓰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모두가 ‘자연계’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자는 ‘자연계’의 이치를 비유로 든다.

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孰爲此者？天地。天地尙不能久，而況於人乎？(二十三章)

거친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도 지속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23장)

11) 劉笑敢, 《莊子哲學及其演變》(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年), 123쪽.

이 문장에서는 날씨를 비유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논리의 수궁을 이끌어 낸 다음,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도 이처럼 오래가지 못한다고 설득력 있는 논변을 펼친다. 여기서 ‘어떤 날씨도 한 가지만 지속될 수 없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참고할 ‘사람’이란 바로 군왕이다. 이처럼 자연의 사례를 먼저 들고 나중에 본론을 말하는 방식의 비유 외에, 먼저 논변을 펼친 다음 후반부에 자연계 이치의 비유를 들어 그 논변에 강한 논리성을 부가하는 방법의 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其安易持，其未兆易謀，其脆易泮，其微易散。爲之於未有，治之於未亂。合抱之木，生於毫末；九層之臺，起於累土；千里之行，始於足下。(六十四章)
안정되어 있을 때는 장악하기 쉽고,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책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것은 깨트러지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처리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합니다. 한 아름의 큰 나무도 털끝만한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구층의 높은 누각도 한줌의 흙을 쌓으면서 시작되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64장)

모든 중요한 일, 커다란 일도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치로,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는 미미한 조짐까지도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비유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를 강조하는 비유는 《노자》 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통치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제점의 오류를 없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의 비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魚不可脫於淵，國之利器，不可以示人。(三十六章)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는 남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36장)

이 문장서 핵심인 ‘國之利器’를 노자는 물고기와 연못으로 비유했다. ‘利器’에 대해서는 권도를 가리킨다는 하상공의 설과, 상벌을 가리킨다는 한비자의 설 등이 있는데,¹²⁾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이다. 군왕이 권력을 드러내게 사용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이다. 왕필은 권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형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¹³⁾ 노자는 군왕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비유했다. 물고기처럼 깊은 연못에 보이지 않게 있어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뜻이다. 다음은 역시 물고기를 비유 이미지로 한 문장이다.

治大國，若烹小鮮。以道蒞天下，其鬼不神。(六十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익히듯 해야 합니다. 도로써 세상을 다스리면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60장)

《노자》에서 잘 알려진 위 문장의 내면적인 의미는 ‘자연스러움’이다. 물고기를 삶으면서 인위적으로 휘젓는 일은 자의적인 행위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마치 맹자가 ‘攬苗助長’¹⁴⁾의 고사에서 강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벼가 잘 자라도록 하려면 벼가 자라는데 해악이 되는 나쁜 환경을 제거해주면 될 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의적인 생각에서 벼를 잡아당긴다. 이는 당대 유종원의 <種樹郭橐駝傳>에서 나무를 심는 지혜를 말하는 곽탁타의 말과 같은 맥락의 논리다.¹⁵⁾ 그러므로 노자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통치에서는 귀신도 힘을 못 쓰고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통치를 강조하기 위한 잘 알려진 비유다.

12) 陳鼓應, 《老子今註今譯》(商務印書館, 民國75年), 142쪽.

13) 같은 책, 142쪽.

14) 朱熹撰, 《四書章句集注》(中華書局, 1989年), 232쪽.

15) 謝水瑩註譯, 《新譯古文觀止》(三民書局, 民國69年), 502쪽.

2. 사물의 자연스러움으로 ‘자연’을 비유

다음은 사물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움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든 경우다.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五章)

천지자연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좋은 지도자 역시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깁니다. (5장)

하늘의 섭리가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일치할 리 없다.¹⁶⁾ 그러므로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이란 인간만의 기준이다. 하늘이 ‘인’이니 ‘불인’이니 하는 것을 가릴 리 없다. 단지 섭리대로만 운행하는 것이니 천지는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기는 것이다. 지푸라기 개는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모셔지는 희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만들어지고 모셔진다. 그러나 제사가 끝나면 버려지고 불태워진다. 사람도 필요한 곳에서 소중하게 쓰이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비유는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위적인 잣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다. ‘어짚’조차도 사사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 비유다.

善行無轍跡; 善言無瑕謫; 善數不用籌策; 善閉無關楗而不可開; 善結無繩約而不可解。(二十七章)

잘 달리면 바퀴자국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계산을 잘하면 계산용 댕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잘 잠그면 자물쇠가 없어도 열리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잘 묶으면 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풀 수 없습니다. (27장)

16) 劉占祥, 《《老子》與中國詩學話語》(巴蜀書社, 2010年), 325쪽.

위의 문장에서는 좋은 용인술을 비유하기 위해서 먼저 5가지의 비유를 든다. 이 비유들은 모두 군왕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다. 역시 인위적인 인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사를 강조한 대목이다.

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二十四章)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옳다는 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어지고, 스스로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24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정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의미의 말을 하기 위해서 《노자》는 먼저 2가지의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다. 자연스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잘 알려진 비유다. 다음은 자연의 이치가 균형을 이루려는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을 비유로 들은 사례다.

天之道, 其猶張弓歟!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 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七十七章)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입니다. 남는 것은 덜어내며, 부족한 것은 보충해 줍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줍니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자의 것을 덜어내어 여유가 있는 자에게 바칩니다.(77장)

균형이 있는 시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자는 활을 비유로 든다.¹⁷⁾ 자연의 섭리는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게 한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노자》의 '物壯則老'(55장)이다. 사물이란 기본적

17) 劉占祥, 앞의 책, 326쪽.

으로 생로병사의 순환 구조 속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잘 알려진 술어인 ‘物極必反’도 같은 의미다.¹⁸⁾ 사물이 가장 강하고 극성한 때에 도달하면, 그것이 바로 쇠락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¹⁹⁾ 이런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자》는 합치려면 반드시 먼저 펼쳐야 한다.(將欲歛之, 必固張之)(36장)는 등 대립 전화의 논리를 4가지 사례로 설명했다. 그 앞에서는 굽으면 다시 온전할 수 있다. (曲則全, 枉則正)(22장)는 등의 논리를 6가지 사례로 설명했으며, 이어서 증감이란 균형 작용의 결과(物或損之而益, 或益之而損)(42장)라는 논리를 설파했다.

《노자》는 이처럼 자연의 규율은 정작용과 반작용이 교차되어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런 상대적인 현상들 사이에서 통치자가 유지해야 하는 균형 있는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를 나열한다. ‘美惡’, ‘善不善’, ‘有無’, ‘難易’, ‘長短’, ‘高下’, ‘音聲’, ‘前後’ 등의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가치기준이다.²⁰⁾ 그러므로 좋은 통치자는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치우치지 않음은 ‘무위’이며, 치우침은 곧 ‘유위’이다. 《노자》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 규율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자연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의 비유를 동원한 것이다.

3. 비움과 낮음, 여성성의 중요함을 말한 비유

《노자》에는 비유를 위한 수많은 사물이 인용되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물고기나 날씨 외에도, 비어있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 보이는 수레바퀴, 둥이 그릇, 문과 창문 등을 비유로 쓴 것이다.

18) 《呂氏春秋·博志》：“全則必缺，極則必反。《四部備要》53冊，中華書局，1989年，180쪽. 《鶡冠子·環流》：“物極則反，命曰環流。”《四部備要》53冊，中華書局，1989年，10쪽.

19) 陳鼓應, 앞의 책, 230쪽.

20) “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形，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第二章)

天地之間，其猶橐籥乎？虛而不屈，動而俞出。多言數窮，不如守中。(五章)

섭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풀무 같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힘이 끝없고 움직일수록 힘은 더욱 세집니다. 말이 많으면 곧 궁색하게 되니 조화로움을 지키느니만 못합니다. (5장)

하늘과 땅의 3차원적 공간을 《노자》는 풀무로 비유한다. 풀무는 속이 비어 있으므로 부단히 바람을 뿜어낼 수 있다.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알맹이인 바람을 품을 수 있고 바람을 생산할 수 있는 '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그 '비움'이 왜 필요한지 들은 적절한 비유다.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十一章)

삼십 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중심축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마차 바퀴로 쓸 수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었으므로 그릇으로 사용 됩니다. 문과 창문을 달아 방을 만들 때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있는 것은 이익이 되지만 비운 곳은 쓸모가 있습니다.(11장)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까닭은 바퀴의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축대와 마찰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그릇도 속이 비어 있으므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방도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처하고 드나들 수 있다. 여기서는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 3개의 비유를 동일한 구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爲天下谿，常德不離，復歸於嬰兒。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爲天下式，常德不忒，復歸於無極。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爲天下谷，常德乃足，復歸於朴。朴散則爲器，聖人用之，則爲官長。

是大制不割。(二十八章)

남성다움을 알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지킨다면 천하를 받아들이는 계곡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덕을 잃지 않게 되고 갓난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키면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면 항상 덕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욕됨을 지킨다면 세상의 골짜기가 됩니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 덕으로 충만하여 소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통나무 같은 순박한 사람들이 그릇이 되면 성인은 이를 이용하여 관리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전한 제도가 되면 결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28장)

계곡이라는 이미지는 낮게 처하면서도 비어 있는 곳이다. 남음으로 만물이 모여들고, 비어 있음으로써 만물을 받아들인다. 세상의 골짜기가 된다는 ‘爲天下谿’, ‘爲天下谷’ 라는 ‘계곡’의 비유는 ‘무위’사상과 함께 《노자》 사상의 근간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역시 계곡의 비유로 잘 알려진 것이다.

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勤。(六章)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오묘한 모성이라 합니다. 암컷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입니다. 끊임 없이 이어지며, 아무리 써도 지칠 줄 모릅니다.(6장)

‘谷神’은 ‘天下谿’이나 ‘天下谷’과 같은 범주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물이 없으면 ‘谷’이고 물이 흐르면 ‘谿’다.²¹⁾ 모두 위와 같이 낮음과 비움의 상징인 동시에 여성성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谷神’은 동시에 ‘玄牝’이다.²²⁾ 받아들이고 또 생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21) 楊義, 《老子還原》(中華書局, 2011年), 22쪽.

22) 같은 책, 22쪽.

大邦者下流，天下之牝，天下之交也。牝常以靜勝牡，以靜爲下。故大邦以下小邦，則取小邦。(六十一章)

큰 나라는 아래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세상의 암컷처럼 세상의 모든 흐름이 만나는 곳입니다.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며, 고요함으로써 낮게 처합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취하여 작은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61장)

낮게 처하지만 오히려 커다란 힘을 생성한다. 중국 학자 楊義는 '谷神'이나 '玄牝'이 모두 중국 고대의 모계 사회의 여성생식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²³⁾ 그런 연유로 부드러움, 유연함이란 삶의 상징이라는 것이 노자의 관점이다. 노자가 '물'을 비유로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 유연함 때문이다.

4. 물의 비유로 유연함의 중요성을 말함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七十八章)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78장)

그러므로 낮음은 지도자의 덕목이다. 고정된 틀을 고집하지 않고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적합한 이미지는 '물'이다. 물은 정형화 되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는 전형적인 사물이다. 물의 무정형성은 《노자》가 가장 자주 비유로 사용한 경우다. 노자가 강조하여 비유로 든 물의 특징을 진고 응은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첫째, 부드러움. 둘째, 낮은 곳에 머무름. 셋째, 만물을 윤기 있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음”이다.²⁴⁾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眾人之所惡，故幾於道。(八章)

23) 楊義, 앞의 책, 23쪽.

24) 陳鼓應, 앞의 책, 232쪽.

훌륭한 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습니다. (8장)

텅 빈 상태의 중요성, 낮게 처함, 그리고 그런 것의 상징인 계곡과 계곡물. 이런 비유 이미지의 궁극은 ‘강’과 ‘바다’에 이른다.

譬道之在天下，猶川谷之於江海。(三十二章)

비유를 하자면 도가 세상에 있는 것은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32장)

수많은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강과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자신을 낮출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를 따른다는 의미다. 이 부분에서의 강과 바다의 비유는 다음 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六十六章)

강과 바다가 모든 개울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울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66장)

겸허의 미덕을 강조하는 위의 비유에서 노자는 낮고 빈 것이 곧 위대하고 높은 것임을 설파한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런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여성성, 계곡, 강과 바다 등의 비유가 노자 출생지의 문화적 환경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²⁵⁾

5. 갓난아이의 비유로 순수함의 중요성을 말함

순수함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자는 ‘갓난아이’의 비유를 사용했다.

25) 楊義, 앞의 책, 24쪽.

載營魄抱一，能無離乎？專氣致柔，能如嬰兒乎？滌除玄覽，能無疵乎？（十章）

영육을 하나로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정기를 부드럽게 하여 어린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사물을 통찰함에 아무 하자가 없게 할 수 있습니까? (10장)

이 부분은 덕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갓난아이와 같아진다는 노자의 대표적인 비유다. 노자는 이를 28장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강조한다. “남성다움을 알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지킨다면 천하를 받아들이는 계곡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덕을 잃지 않게 되고 갓난아이가 되게 됩니다.”라고 하는 노자는 여기서 다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조한다. ‘專氣致柔’란 정기를 모아 가장 유순한 상태에 다다른 경지를 말한다. 그 경지의 상징이 갓난아이이다. 갓난아이의 비유를 두고 류점상은 《노자》의 이런 관점은 바로 “노쇠한 유약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충만한 유연함이며, 강인한 유연함”이라고 말한다.²⁶⁾

舍德之厚，比於赤子。毒蟲不螫，猛獸不據，攫鳥不搏。骨弱筋柔而握固。未知牝牡之合而媵作，精之至也。終日號而不嘎，和之至也。知和曰常，知常曰明，益生曰祥，心使氣曰強。物壯則老，謂之不道，不道早已。（五十五章）

덕이 풍부해서 어린이처럼 되면 해충도 쏘지 않고 뱀도 물지 않습니다. 맹수도 덤벼 들지 않으며 사나운 날짐승도 덮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쥐는 힘은 강합니다. 남녀의 교합은 아직 모르지만 몸의 기운은 충만합니다. 정기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조화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알면 변함없다고 하고, 변함없는 것을 알면 밝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려는 것을 요망하다 하고, 욕심으로 정기를 격하게 쓰는 것을 완강하다고 합니다. 만물은 강대해지면 곧 쇠퇴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합니다. 도가 아닌 것은 빨리 그쳐야 합니다. (55장)

26) 劉占祥, 앞의 책, 319쪽.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한 지도자(古之善爲道者)를 형용하기 위한 비유는 9개의 비유로 묘사된다.

豫兮若冬涉川，猶兮若畏四鄰，儼兮其若客，渙兮其若凌釋，敦兮其若朴，曠兮其若谷，混兮其若濁，澹兮其若海，飄兮其無止。(十五章)

신중한 태도는 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사방 모든 것을 경계하듯 합니다. 엄숙하기는 초대받은 손님과 같습니다. 부드럽기는 마치 봄날에 얼음이 녹아 풀리듯 합니다. 꾸밈없음은 막 베어 낸 통나무 같습니다. 마음이 트이기는 넓은 골짜기 같습니다. 소탈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는 모습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맑기는 바다와 같습니다. 부는 바람 같기는 머무는 곳 없는 듯합니다. (15장)

진고응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9개의 비유가 모두 일상생활과 자연사물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²⁷⁾ 이 부분은 마치 장자가 ‘眞人’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노자는 소박하고도 직접적인 ‘素朴直截’ 특징의 묘사를 했다. 이는 모두 도를 체득한 사람을 묘사하는 생동하는 묘사임에 틀림없다.

《노자》 비유의 절정은 다음에 예시한 25장이다. 이 부분은 다양한 비유 외에도 의태어와 의성어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唯之與阿，相去幾何？美之與惡，相去若何？人之所畏，不可不畏。荒兮其未央哉！眾人熙熙，如享太牢，如春登臺。我獨泊兮，其未兆；沌沌兮，如嬰兒之未孩。儻儻兮，若無所歸。眾人皆有餘，而我獨若遺。我愚人之心也哉，沌沌兮，俗人昭昭，我獨昏昏。俗人察察，我獨悶悶。澹兮其若海，颺兮其若無止。眾人皆有以，而我獨頑且鄙。我獨異於人，而貴食母。(二十章)

“네” 하는 대답과 “응” 하는 대답이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도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남들과 달라 그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희낙락하며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홀로 움직임이 없는 고요

27) 陳鼓應, 앞의 책, 89쪽.

속에서 마치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이, 나른하고 어릿어릿하여 돌아갈 곳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욕이 넘치고 있건만 지도자는 홀로 소외된 것 같으니, 혹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현명한데 자신만 홀로 흐리멍덩하기 만합니다. 사람들은 사리에 밝고 빈틈이 없는 데 자신만 홀로 사리에 어두운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넓은 바다와 같고 끝없이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건만 지도자는 홀로 완고하고 어리석은 촌뜨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20장)

세속의 사람들은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 하지만 도를 체득한 지도자는 '마치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처럼 어릿어릿할 뿐 아니라, 또 '넓은 바다와 같고 끝없이 부는 바람'과 같다. 《노자》는 생동하는 표현을 위해서 세속의 사람은 '熙熙', '昭昭', '察察'로 그리고, 도를 깨친 사람은 '儻儻', '沌沌', '昏昏', '悶悶'이라고 중첩형용사를 사용한다. 비유로 점철된 위의 문장에서 '我'라는 한자가 7회나 나오는데, 진고응은 일본학자 福永光司의 말을 빌려 그 이유가 '道'와 소통하는 '我'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⁸⁾

이상과 같이 《노자》의 비유를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확실한 것은, 이치에 맞는 일상적인 비유, 다양하고 풍부한 비유, 쉽고도 명쾌한 비유로 점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노자의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비유 형식이 병렬식 비교 구문의 은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직유나 은유가 아니라, 노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비교될만한 유사한 사물의 사례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병치하여 비유하려는 뜻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²⁹⁾ 이는 “兵无常势, 水无常形”³⁰⁾처럼 동일하거나 유

28) 陳鼓應, 앞의 책, 101쪽.

29) 趙世舉, <古漢語暗喻的表達形式及其特點淺說>, 《修辭學習》, 1998年, 第6期, 26쪽.

30) 《孫子兵法·虛實篇》, 《四部備要》, 第51冊(中華書局, 1989年), 81쪽.

사한 이치의 비유 구문을 앞이나 뒤에 연결시켜 말함으로써 형상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 한어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독특한 비유 형식이다. 《노자》의 그 대표적인 예문이 “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24장)인데 여기서 모든 구절은 의미의 병렬 구조를 띠고 있으면서 마치 駢聯文의 구성처럼 앞뒤의 비유구문은 본 의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학자 류점상은 《노자》의 이런 다양하고 풍부한 비유는 바로 언어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도’를 시적 비유 방식(詩性言說方式)으로 그려냈다고 설명한다. 그는 《노자》의 이런 비유가 생동하는 형상으로 드러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자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즉 시적인 비유는 암시성과 상징성으로 사람들에게 공명을 주며 함께 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자》의 비유는 읽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며 가슴 깊이 자유로운 영혼의 울림을 준다고 말한다.³¹⁾

Ⅲ. 형식으로 분석한 《노자》 비유의 특징

1. 풍부하고 다양한 비유 이미지들

본고에서는 《노자》의 비유 구문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65개의 대표적인 비유 중에서 47개의 비유 이미지가 정리되었다.

31) 劉占祥, 앞의 책, 320쪽.

구분(총횟수)	사용횟수	비유로 쓰인 이미지의 예
산하(16)	3	谷-계곡
	2	江海-강과 바다, 水-물, 淵-연못
	1	川谷-개천과 계곡, 百谷-수많은 계곡(물), 谿-계곡 물, 下流-하류의 강, 九層之臺-높은 누대, 谷神-계곡의 신, 濁-탁한 물
날씨(4)	1	飄風-세찬 바람, 驟雨-세찬 비, 凌釋-얼음이 녹음, 甘露-단 이슬
사람(11)	3	嬰兒-갓난아이 母-어머니
	1	企者-뒤꿈치를 든 사람, 跨者-보폭을 크게 걷는 사람
동물(10)	2	雌-암컷, 牝-암컷(암소), 牡-수컷(황소)
	1	小鮮-작은 물고기, 雄-수컷, 魚-물고기, 玄牝-오묘한 암컷
식물(7)	6	朴-다듬지 않은 나무
	1	合抱之木-아름드리나무
생활(23)	5	器-그릇
	1	享太牢-잔치를 즐김, 春登臺-봄의 누대를 오름, 被褐-거친 옷을 입음, 懷玉-옥구슬을 품음, 千里之行-먼 길을 감, 轍跡-수레바퀴 자국, 瑕謫-결함, 籌策-계산용 산가지, 關鍵-자물쇠, 繩約-묶는 끈, 鞅-수레바퀴 축, 室-방, 冬涉川-겨울 강물 건너기, 畏四鄰-주위를 조심하기, 客-손님처럼 조심이 대함, 利器-중요한 물건, 芻狗-짚으로 만든 개, 張弓-시위를 당긴 활, 橐籥-풀무, 芻狗-지푸라기 개

《노자》에 등장하는 이들 비유 이미지의 특징은 우선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이다. 직유와 은유, 그리고 차유법이 고르게 쓰였다. 특히 비유에 동원된 이미지는 당시의 그 어느 문헌과 비교해도 두드러질 정도로 풍부하다. 동시대 공자의 언행록으로 남아 있는 《논어》의 경우 비유 문구는 극히 적다. 일부 있다고 해도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眾星共之。”³²⁾ 이나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朽也, 於予與何誅。”³³⁾, “鳥之將死, 其

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³⁴⁾，“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³⁵⁾，“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³⁶⁾의 경우처럼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다.

북경사회과학원의 楊義가 지적한 대로 《노자》의 경우는 당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진나라와 초나라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³⁷⁾ 문자의 표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비유의 이미지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채롭게 펼쳐진 것이다. 자연스러움을 비유하는 것에는 물고기와 물 또는 날씨, 낮고 겸허함을 비유하는 것에는 여성, 계곡, 강과 바다, 순수함을 비유하는 데에는 어린아이, 비어있음에는 방과 그릇, 수레바퀴, 풀무 등이고, 이들은 대부분 자연물 또는 자연 상태 것의 비유가 대부분을 이룬다. 위에서 정리된 도표의 내용으로 주목되는 것은 노자의 비유이미지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의 비유나 생활용품을 이용한 비유가 특별히 많다는 점이다. 양의의 주장대로 이는 어쩌면 진나라와 초나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노자가 주나라의 수도인 낙양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쇠락해 가는 주나라를 보고 이 책을 쓰는 가운데 남기 고향 문화의 흔적일 수도 있다.³⁸⁾

2. 직유(明喻)의 경우

《노자》에서 ‘猶’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비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天地之間，其猶橐籥乎?”(5장)에서 ‘탁약’은 쇠를 주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붙이는 도구를 직유로 사용했다.³⁹⁾ “譬道之在天

32) 朱熹撰, 《四書章句集注》(中華書局, 1989年), 爲政篇, 53쪽.

33) 같은 책, 公治長篇, 78쪽.

34) 같은 책, 泰伯篇, 103쪽.

35) 같은 책, 子罕篇, 115쪽.

36) 같은 책, 顏淵篇, 138쪽.

37) 楊義, 앞의 책, 83쪽.

38) 같은 책, <洛陽老子在《老子》書中留下的模糊面影>(中華書局, 2011年), 41쪽.

39) 陳鼓應, 앞의 책, 60쪽. 원문: 吳澄曰:《橐籥》, 冶鑄所以吹風熾火之器也.

下, 猶川谷之於江海。”(32장)은 “비유를 하자면 도가 세상에 있는 것은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인데 여기서 비유하려고 하는 본체는 ‘잘 다스려지는 국가들’이다. “天之道, 其猶張弓歟!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77장)은 자연의 규율은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자연의 균형을 설명한 사례이다.

다음은 ‘若’이 들어간 직유 부분이다. “上善若水。”(8장) 구절은 물의 성질로 상덕자의 인격을 비유하였다.⁴⁰⁾ “治大國, 若烹小鮮。”(60장)은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는 이리저리 휘젓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위의 정치를 비유했다.

‘如’의 경우는 “專氣致柔, 能如嬰兒乎?”(10장)에서 정기가 충만하고 화합될 수 있는가를 ‘갓난아이’로 비유했다.⁴¹⁾ 세속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도를 깨친 사람인 ‘나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如享太牢, 如春登臺’, ‘如嬰兒之未孩’, ‘若無所歸’, ‘若遺’, ‘若海’, ‘若無止’(20장) 등의 직유법이 많이 쓰였다. “是故不欲琤琤如玉, 珞珞如石。”(39장)은 옥과 돌의 비유에서 돌이 비유하는 본체는 도를 지닌 군주의 인품을 그린 것이다.⁴²⁾

그 외에도 ‘比於’를 사용해서 직유로 묘사한 경우는 “舍德之厚, 比於赤子。毒蟲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骨弱筋柔而握固。未知牝牡之合而媵作, 精之至也。終日號而不嘎, 和之至也。”(55장)의 경우로, 덕이 완전한 상태의 사람을 갓난아이로 비유하고, 그 아이의 정기가 충만한 상태를 다양하게 묘사했다.

爲函以周罩於外者, 橐也; 爲轄以鼓扇於內者, 籥也。天地間猶橐籥者, 橐象太虛, 包含周遍之體; 籥象元氣, 網緝流行之用。

40) 같은 책, 67쪽.

41) 같은 책, 73쪽.

42) 같은 책, 153쪽.

3. 은유(暗喻)의 경우

《노자》에서 은유는 직유보다 더 많이 쓰였다. 우선 도를 말하는 과정에서 ‘모母’라는 이미지로 은유한 경우다. “天下有始，以爲天下母。既得其母，又知其子。既知其子，復守其母。”(52장) ‘모母’와 ‘자’子가 비유하는 것은 각각 ‘도’와 ‘만물’이다. ‘모母’는 특히 이 외에도 “有，名萬物之母。”(1장), “我獨異於人，而貴食母。”(20장), “獨立而不改，周行而不殆，可以爲天下母。”(25장), “有國之母，可以長久。”(59장) 등에서 모두 ‘도’, 또는 ‘도적 근원’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사심 없이 다스리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비유한 경우, “天地不仁，以萬物爲芻狗；聖人不仁，以百姓爲芻狗。”(5장) 구절을 보면 성인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고, 백성이 마음대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쉬는데 맡겨두기에 백성에게 사심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추구’로 비유하였다.⁴³⁾ “滌除玄覽”(10장)의 경우는 심령의 깊은 곳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함을 은유로 비유한 것이다.⁴⁴⁾

《노자》는 권력을 가진 군왕이 오히려 겸허와 낮음으로 처신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사용한다. “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爲天下谿，常德不離，復歸於嬰兒。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爲天下式，常德不忒，復歸於無極。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爲天下谷，常德乃足，復歸於朴。”(28장) 여기서는 수컷의 ‘강인함雄’을 알고, 암컷의 ‘부드러움雌’을 유지한다면 ‘세상을 품을 수 있다谿’는 비유, ‘지혜로움白’을 갖추고서도 ‘어리석은黑’ 듯이 산다면 ‘세상의 기준式’이 된다는 비유, ‘영예로움榮’을 알면서도 ‘욕됨辱’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품는 왕谷’이 된다는 은유적 비유가 노래 시처럼 열거되고 있다. 유사한 은유로는 “天門開

43) 같은 책, 60쪽. 원문: 吳澄說: “芻狗, 縛草爲狗之形, 禱雨所用也。既禱則棄之, 無復有顧惜之意。天地無心於愛物, 而任其自生自成; 聖人無心於愛民, 而任其自作自息, 故以芻狗爲喻。”

44) 같은 책, 71쪽.

闔, 能爲雌乎?”(10장)라는 구절로, ‘천문’이란 감각기관을 비유했고, ‘자’는 암컷의 의미가 있음에도 여기서는 “고요함을 지킨다”는 뜻으로 쓰였다.⁴⁵⁾

다스림의 이상을 묘사한 것으로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63장)라는 구절에서 ‘강과 바다江海’와 ‘백곡百谷’은 각각 ‘이상적인 통치자’와 ‘백성’을 비유한 것이다. ‘백곡百谷’은 작은 나라들을 은유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32장)라고 하여 ‘천지天地’는 통치자와 백성을 나타내고 ‘감로甘露’가 비유하는 것은 이상적인 다스림의 실현을 묘사했다. “大邦者下流, 天下之牝, 天下之交也.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61장)에서 ‘하류下流’와 ‘빈牝’은 모두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큰 나라의 다른 비유 이미지이다.

그 외에도 은유의 수사로 쓰인 것으로는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 不可以示人。”(36장)인데, 이 구절은 통치자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물고기魚’와 ‘연못淵’의 비유다. “聖人被褐而懷玉。”(70장)은 이상적인 지도자인 성인이 갖춘 것은 ‘냇은 옷褐’과 같은 외양이지만 내면에는 ‘옥玉’을 품고 있다는 비유다. “草木生之也柔脆, 其死也枯槁。”(76장)라는 문구는 바로 위 문장에 이어서 사람을 ‘초목草木’으로 비유했다.

4. 대유(借喻)의 경우

대유는 《노자》 문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는 어떤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의 예시를 보여주는 경우인데, 《노자》에는 이런 비유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었다.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20장)의 경우 인간이 나눈 가치는 상대적이어서 크게 비중 둘 일이 아니라는 의미의 비유다.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23장)은 어떤 한 가지 날씨만 줄곧 지속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의도적

45) 陳鼓應, 앞의 책, 72쪽.

인 정치의 편향성을 부정하는 글이다. 2개의 속담으로 자연의 이치를 비유했다. “企者不立, 跨者不行。”(24장) 억지로 작위적인 언행을 해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뒤의 4 가지 본 논점을 위해서 앞에 이와 같은 2개 비유를 사용했다. “三十輻, 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11장)은 비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은 비유들이다. 비어 있음은 빈 채로 용도(用)가 있다. 달리 말하면 용도를 전제로 한 비유이다.

“豫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鄰, 儼兮其若客, 渙兮其若凌釋, 敦兮其若朴,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澹兮其若海, 飄兮其無止。”(15장)에서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의 정신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9개의 연속 비유를 구사했다. “善行無轍跡; 善言無瑕謫; 善數不用籌策; 善閉無關鍵而不可開; 善結無繩約而不可解。”(27장)의 경우 도에 따라 정치를 하면 흠잡을 데 없이 완전무결함을 가리키는 5개의 비유를 이었다. “扃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64장)의 문장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의 조짐과 기초를 다지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한 대유법 비유다.

기타 비유가 점철된 문장은 다음 장이다. “眾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我獨泊兮, 其未兆; 沌沌兮, 如嬰兒之未孩。儻儻兮, 若無所歸。眾人皆有餘, 而我獨若遺。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俗人昭昭, 我獨昏昏。俗人察察, 我獨悶悶。澹兮其若海, 颺兮若無止。眾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我獨異於人, 而貴食母。”(20장)라는 이 문장은 위에서 언급한 직유법 외에도 웃음소리인 ‘熙熙’, 혼돈스러운 모양인 ‘沌沌’, 맥이 빠진 모습인 ‘儻儻’, 무엇이든 총명한 모양인 ‘昭昭’, 우매한 모습의 ‘昏昏’, 이것저것 따져보는 모습의 ‘察察’, 근심스런 모습인 ‘悶悶’, 고요한 바다를 묘사한 ‘澹兮其若海’, 끝없이 부는 바람을 묘사한 ‘颺兮若無止’ 같은 비유로 점철된 경우다.⁴⁶⁾

46) 이는 《노자》 58장의 “其政悶悶, 其人淳淳; 其政察察, 其人缺缺。”과 같은 묘사의 경우다.

이상의 비유 형식을 검토해본 결과 《노자》에서 직유보다는 은유, 대유가 훨씬 더 많이 쓰였고 다양했다. 그러나 《노자》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를 2개 이상 연달아 사용하는 '博喻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최다의 '박유'는 9개에 이른다.

5. 박유(博喻)의 경우

일반적인 비유(比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유의 횟수	비유 문구
一喩9회	魚不可脫於淵。 / 國之利器，不可以示人 / 治大國，若烹小鮮 / 天地之間，其猶橐籥乎？ / 天之道，其猶張弓歟！高者抑之，下者舉之，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 / 天地相合，以降甘露，民莫之令而自均。 / 譬道之在天下，猶川谷之於江海。 / 江海之所以能為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為百谷王。 /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 / 大邦者下流，天下之牝，天下之交也。牝常以靜勝牡，以靜為下。

그러나 연속 비유[博喻]는 《노자》에서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

비유의 횟수	비유 문구
二喩3회	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 / 天地不仁，以萬物為芻狗；聖人不仁，以百姓為芻狗。 / 唯之與阿，相去幾何？美之與惡，相去若何？
三喩2회	合抱之木，生於毫末；九層之臺，起於累土；千里之行，始於足下。 /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為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為室，當其無，有室之用。

四喻3회	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爲天下谿，常德不離，復歸於嬰兒。 / 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爲天下式，常德不忒，復歸於無極。 / 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爲天下谷，常德乃足，復歸於朴。朴散則爲器，聖人用之，則爲官長。是大制不割。
五喻1회	善行無轍跡；善言無瑕謫；善數不用籌策；善閉無關楗而不可開；善結無繩約而不可解。
六喻2회	企者不立，跨者不行，自見者不明，自是者不彰，自伐者無功，自矜者不長。 / 含德之厚，比於赤子。毒蟲不螫，猛獸不據，攫鳥不搏。骨弱筋柔而握固。未知牝牡之合而媵作，精之至也。終日號而不嘎，和之至也。
九喻1회	豫兮若冬涉川，猶兮若畏四鄰，儼兮其若客，渙兮其若凌釋，敦兮其若朴，曠兮其若谷，混兮其若濁，澹兮其若海，飄兮其無止。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노자》의 비유는 2회 이상 연달아 나오는 ‘박유’의 수법이 절대적으로 많이 쓰였으며, 6유, 9유 등 쉴 틈 없는 비유의 묘사가 화려하게 구사되고 있다. 이런 박유의 특징은 다른 비유가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이치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인 묘사로 그려내는 문학적 힘을 가지고 있다. 《노자》의 이러한 주목할 만한 문학적 수사는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주목할 것은 고대 중국어의 특성상 비유 이미지가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쓰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勤。”(6장)이라는 문장에서 ‘곡’은 계곡인 동시에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진 고응은 ‘곡’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嚴復의 말을 빌어 “비어 있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고”, ‘신神’은 “응하지 않는 게 없다”고 설명한다.⁴⁷⁾ 계곡의

47) 陳鼓應, 앞의 책, 63쪽. 원문: 嚴復曰: “以其虛, 故曰穀; 以其因應無窮, 故稱神; 以其不屈愈出, 故曰不死。三者皆道之德也。”

신, 현묘한 암컷, 그리고 그것의 문, 천지의 뿌리 등의 개념은 모두 도의 성격 중 여성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쓰였음에도 그 비유 이미지가 그대로 본 의미를 띠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朴'이 있다. 이 글자는 '四部叢刊'을 보면 '樸'로 쓰였는데, 잘 알려진 대로 이 한자는 《說文》에서 “樸, 木素也”⁴⁸⁾로 해석했지만 《노자》에서는 동시에 “敦兮其若朴.”처럼 ‘朴实无华’의 의미로 쓰였다. ‘木素’는 또한 ‘朴实’이다. 이러한 이중의미의 어휘까지 넣고 보면 《노자》에서 비유의 분량은 한없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노자》에는 비유가 상당히 풍부하다. 이런 특징은 다른 儒家의 문헌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특히 《논어》와 비교하면 《노자》의 비유는 그 수량이나 내용에서 단연 탁월하다. 이는 노자가 제시하는 ‘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도’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사회의 질서와 군왕의 통치 및 그 삶의 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노자는 논리를 넘어서서 직관적 방식으로 의미를 포착하고 설명한다. 직관이란 기존 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깊은 눈과 순수한 영혼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그의 적절한 비유는 의미의 정곡을 찌른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사회의 질서이기도 하며 그 질서를 이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 그 힘이란 인간 세상에서 제왕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노자》의 글을 ‘제왕학’으로 본 것이다.

노자는 이런 이치를 설파하기 위해서, 자연계의 이치를 비유로 ‘무위’를 강조했고, 사물의 자연스러움을 비유로 이상적인 다스림을 말했다. 비움과 낮음, 여성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계곡을 비유하였으며, 물의 비유로

48) 段玉裁撰, 《說文解字注》(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72年), 252쪽.

유연합의 중요성을, 그리고 갓난아이의 비유로 정신적 순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비유는 또한 직유법을 넘어서서, 다양한 은유와 대유법으로 구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유와 은유 대유가 모두 사용되었지만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비유 형식이 병렬식 비교 구문의 은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 1개의 비유로 그치지 않고 2개에서 9개에 이르는 연속 비유인 ‘박유’의 수법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비유 이미지는 명확하고 독특하다. 북경대학 교수 李零이 정리한 《노자》 비유의 유형은 (1) 자연이 어머니와 같다는 ‘母’의 비유, (2) 표현된 덕은 갓난아이와 같다는 ‘嬰兒’의 비유, (3) 국가 간의 관계를 남녀 교합으로 비유한 ‘牝牡’의 비유, (4) 수용과 성장을 말한 ‘谷神’의 비유, (5) 유약함과 자연스러움의 상징인 ‘水’의 비유, (6) 순수한 본 모습을 강조한 ‘朴’의 비유 등이다.⁴⁹⁾ 보조관념으로 쓰인 비유 이미지 중 특히 주목할 것은 물과 계곡에 관련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川’, ‘江’, ‘海’, ‘水’ 등 물과 관련된 이미지가 총 10회, 그리고 ‘谷’이 10회 나타난다. 그 외에도 ‘朴’이 6회 등 노자가 강조하는 자연스러움, 낮고 유약함, 비우고 겸허함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출현이 적재적소에 활용된 것이다. 이것이 곧 《노자》에 나타난 정치한 문학적 비유의 특징이다.

이를 보면 앞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비유 이미지들을 분석하면서 《노자》의 이런 특징이 초나라 문화권의 영역에서 탄생한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한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노자는 《사기》에서 보기 드물게 그 출생지가 명확히 적시된 인물이다. 《사기》에는 한고조 유방과 공자, 그리고 노자의 3사람만이 출생지가 ‘鄉’과 ‘里’까지 기록되었다.⁵⁰⁾ 楊義는 노자의 이런 비유 이미지의 특성은 완전히 당시 (인접한 陳나라를 포함한)

49) 李零, 《人往低處走—《老子》天下第一》(北京: 三聯書店, 2008年3月), 9-12쪽.

50) “老子者, 楚苦縣厲鄉曲仁裏人也, 姓李氏, 名耳, 字聃, 周守藏室之史也。”(《史記·老子韓非列傳》) 中華書局, 1989年, 2139쪽. 노자라는 인물의 실재성에 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논점외의 문제이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초나라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¹⁾ 모계사회 유습, 생식숭배, 계곡신앙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화적 자연적 배경 속에서 노자의 다채로운 비유 기제가 탄생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자》와 같은 시기의 어록 문집인 《논어》를 비교하면 이 두 문헌은 비유적 수사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논어》는 약 21,000여 자이지만 비유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필자가 취합한 《논어》의 비유 문장은 30여 개를 넘지 않는다. 반면 《노자》는 약 5,000여자에 불과한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비유 이미지가 극히 풍부하고 다양하다. 비유 수법으로 구성된 문구는 전체 5,000여자의 분량 중 대표적인 것만 76곳에 달한다. 《노자》가 비유 수사에 있어 《논어》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그 문학적 수사방식에 있어 크게 다른 것은 그 문장의 근본적 차이 때문이다. 《논어》는 생활상의 대화를 기록한 어록체임에 비하여 《노자》는 한 사람이 지은 '운문'에 가까운 저작물이다. 그러다 보니 《논어》에는 156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노자》에는 인명은 물론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전고가 단 하나도 없다.⁵²⁾ 등장인물로는 단지 '나'와 '성인', 그리고 '백성'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劉勰은 《노자》가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자 자신은 오히려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고 한다.⁵³⁾ 청대의 趙翼은 《노자》를 두고 아예 산문이 아니라고 단언한 바 있고⁵⁴⁾ 李零은 《노자》가 시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운문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노자》가 비유에 있어서 탁월한 수사법을 구사했다고 하면서, '도'나 그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 대신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직관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⁵⁵⁾

51) 楊義, 앞의 책, 19쪽.

52) 李零, 《人往低處走—《老子》天下第一》(北京: 三聯書店, 2008年3月), 7-8쪽.

53) 劉勰著, 詹鎡義證, 《文心雕龍義證·情采第三十一》(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1154쪽.

54) 楊義, 앞의 책, 216쪽에서 재인용.

55) 李零, 앞의 책, 7-8쪽.

《노자》의 비유가 주목되는 까닭은 노자가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이 논리적 구조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한 직관적 표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노자》 전편에 나타난 문구는 어디에도 논리성을 띠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설이라고 하는 반 논리가 더 많이 보인다. 논리성이 없는 문장이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전해오게 한 것은 순전히 비유를 통한 그 직관적 표현 덕분이다. 직관적 사유는 인간이 기존의 개념을 기초로 하지 않고,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활동이다.⁵⁶⁾ 예를 들어 노자가 말한 ‘玄同’이란 진고옹의 말대로 사람이 자아의 굴레를 깨고 벗어나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다.⁵⁷⁾ 이는 또한 《장자》의 ‘得魚而忘筌’⁵⁸⁾이라는 비유의 다른 표현이다. 표상을 넘어서서 본질을 직접 인식하는 직관적 사유방식은 동양에 있어서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이 《노자》에서 풍부한 비유의 문학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이런 직접인식의 과정을 창조적 직관이라고 표현한다.⁵⁹⁾ 노자가 ‘滌除玄覽’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직관적 사유의 전형이다. 노자가 본 것은 쇠락해 가는 주나라의 황실이었고,⁶⁰⁾ 그는 그런 나라를 보며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道)을 제시하고자 했다. 직관적 사유인 ‘玄覽’을 ‘통찰’이라고 한다면, 그는 군왕에게 ‘玄覽’을 통해 통찰한 ‘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와 인간의 진정한 길(道)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국가경영과 개인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파한 그의 비유는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문학적 기제였던 셈이다.

56) 李鐸, 《中國古代文論教程》(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11쪽.

57) 陳鼓應, 앞의 책, 189쪽.

58) 《莊子·外物》, 《四部備要·莊子》(中華書局, 1989), 669쪽.

59) 雅克·馬利坦(Jacques Maritain, 1882~1973)著, 劉有元等譯, 《藝術與詩中的創造性直覺》, 三聯書店, 1991年, 8쪽.

60) “老子修道德, 其學以自隱無名爲務。居周久之, 見周衰, 遂去。”(《史記·老子韓非列傳》), 中華書局, 1989年, 2141쪽.

<參考文獻>

- 《四部備要·史記》(中華書局), 1989年.
《四部備要·漢書·藝文志》(中華書局), 1989年.
《四部備要·莊子》(中華書局), 1989年.
《四部備要·老子》(中華書局), 1989年.
《四部備要·呂氏春秋》(中華書局), 1989年.
《四部備要·孫子兵法》(中華書局), 1989年.
陳鼓應, 《老子今註今譯》(商務印書館), 民國75年.
劉勰, 《文心雕龍》(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雅克 馬利坦著, 劉有元等譯, 《藝術與詩中的創造性直覺》(三聯書店),
1991年.
李鐸, 《中國古代文論教程》(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李零, 《人往低處走-《老子》天下第一》(北京: 三聯書店), 2008年3月版.
楊義, 《老子還原》(中華書局), 2011年.
劉笑敢, 《莊子哲學及其演變》(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年.
劉占祥, 《《老子》與中國詩學話語》(巴蜀書社), 2010年.
李運富等編, 《古代漢語教程》(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7年.
李維琦編著, 《修辭學》(湖南人民出版社), 1986年.
王漫宇編著, 《修辭學的應用》(中國物資出版社), 1986年.
倪寶元, 《修辭》(浙江人民出版社), 1982年.
안동림 역, 《원진으로 읽는 莊子》(현암사), 1997년.

<中文提要>

《老子》中運用了極其豐富的比喻, 這一特征在儒家文獻中是很少見

的。尤其是與《論語》相比，《老子》中運用的比喻無論在數量上還是內容上非常突出。這是老子爲了闡述他所主張的“道”所做的努力，也是以“道”爲基礎，對政治社會的秩序和君主的統治所作的闡釋。爲了達到這一目的，老子沒有拘泥於一般的論理，而是採用了非常直觀的寫作方法對其要闡述的道理進行了詮釋。所謂的“直觀”，就是擺脫固有觀念的桎梏，用更深刻的省察和純淨的靈魂去看待事物的視角。老子運用恰到好處的比喻將“道”的重點一語道破：老子主張“道”是自然的規律，同時也是人類社會的秩序，還是維持這一秩序的力量。這種力量就是人類社會中帝王的勢力。正因爲如此，後世也將《老子》闡述的道理稱爲“帝王學”。

爲了闡述自己主張的“道”，老子將自然界的規律歸結爲“無爲”，指出治理國家要順應自然。他用溪穀強調“虛空”、“居下”以及“天下母”的重要性，用水來強調柔軟的重要性，用“赤子”來比喻精神上的純淨。老子不僅使用了直喻的手法，還運用了各種隱喻和代喻。在《老子》中，直喻、隱喻和代喻幾乎可見於全書的各個章節，但還有個重要的特征就是，大部分的比喻並不是只有一個，往往會連續出現2到9個比喻，這種“博喻”的手法也是很獨特並且明確的。不僅如此，用作比喻的形象也很明確、獨特。作爲一種輔助手段，與水、穀有關的事物在比喻中占據了相當大的比重。譬如：“川”、“江”、“海”、“水”等與水有關的事物共出現過10次，“穀”出現過10次，“樸”出現過6次。這些代表“自然”、“居下”、“柔弱”、“虛空”和“謙遜”的事物在老子的比喻中被運用得恰到好處。這也正是《老子》一書中文學性比喻的特征。

《老子》中的比喻之所以受到關注，是因爲老子所主張的觀點並不是通過說理來闡述的，而是通過比喻更直觀地展現出來。在《老子》中出現的句子，沒有一處有論理的痕跡，甚至與其相反的內容要更多。這樣沒有任何說理痕跡的章節能夠在幾千年來得到人們的認同，正是因爲他運用了純粹的比喻手法。直觀的思維讓人們可以擺脫固有觀念的束縛，更快更直接地對事物作出判斷。例如，陳鼓應就指出，“玄同”正是人們從自我的桎梏中解脫出來，萬物歸一的境界。這也是《莊子》中的“得魚而忘荃”的另一種詮釋。超越表象去體驗本質的思維方式是東方悠久的傳統，這在《老子》中通過豐富

的比喻而體現出來。法國現代哲學家雅克·馬利坦把這種“直接認知”稱爲“創造性的直觀”。老子所說的“滌除玄覽”就是這種直觀比喻的典型。老子看到的是正在走向衰落的周王室，他看著這樣的國家，希望提出一些治理的對策。如果說“玄覽”和“洞察”是直觀的思維，那麼老子就是想要通過“玄覽”爲君主揭示洞察的“道”，以及以其爲基礎的社會、人類的“道”的本質。從這一點來看，老子的比喻揭示了如何將“道”運用到治國大業、反映到個人生活中去的道理。由此可見，老子的比喻不愧是一種傑出的文學機制。

주제어 : 노자, 도, 제왕학, 비유, 대유, 박유, 직관

